

'금빛 투혼' 뒤엔 '금빛 조련'

■ 광주·전남 출신 감독들 맹활약

자랑스런 한국 금메달리스트들의 뒤에는 전남 출신의 명조련사들이 있었다. 지난 17일 밤 베이징 올림픽 폐회식에서 금메달을 확정지은 화순 출신 이용대(20)의 '금빛 스매싱'이 터져나오자 가장 먼저 이동수(34) 코치가 두 팔을 번쩍 든 채 코트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뒤늦게 한 사람이 선수들 손에 이끌려 나와 이용대·이효정과 포옹을 한 뒤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한국의 8번째 금메달리스트들을 만들어낸 화순 출신의 김중수(48) 대표팀 감독이었다.

르네상스를 맞은 한국 역도에는 전남체고(現 광주체고) 출신 이형근(44) 남자 대표팀 감독의 작전이 빛을 발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안도 출신의 지훈민(24)과 조선대를 졸업한 이배영(29)은 인상에서 메달권에 진입하고도 웅상에서 실격을 당해 아쉽게 메달의 문턱에서 좌절했다. 하지만 77kg급에 출전한 사재혁(23)은 황금 바벨을 들어올리며 16년만의 역도 금메달 낭보를 전했다. 사재혁의 금메달은 88올림픽 동메달 리스트인 이형근 감독의 치밀한 작전이 만들

■ 김중수 배드민턴 감독

中 텃세 극복... 금·은·동 1개씩 획득

■ 이형근 남자역도 감독

치밀한 작전으로 사재혁 금 이끌어

■ 장영술 남자양궁 감독

올림픽 남자 단체 3연패 진두지휘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로 활동해온 김 감독은 2001년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 1개, 은 2개, 동메달 1개를 선사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금·은·동 1개씩을 거머쥐며 배드민턴을 '효자종목'으로 올려놓았다.

하지만 김 감독은 올림픽을 불과 40여 일 앞둔 지난 6월말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들의 공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감독 자격이 일시 정지되는 고초를 겪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배드민턴 협회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김 감독의 복귀를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김 감독의 마음 고생이 심했다. 어려운 조건을 이겨낸 김 감독은 중국의 일방적인 텃세 속에서 3차례나 태극기를 날리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2개의 금메달과 은메달 1개를 수확하며 '작은 거인' 전병관 이후 16년 만에 금빛

어번 승리했다. 사재혁은 인상에서 163kg을 기록해 최대 라이벌이었던 중국의 리홍리보다 5kg이 낮은 무게를 들어올렸지만, 웅상에서 203kg를 들어올려 동물을 이루 어 450kg이라는 몸무게 차이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재혁은 인터뷰에서 "인상167kg, 웅상 211kg이 목표였는데 욕심내지않고 감독님 작전에 잘 맞춰 경기를 풀어나간 것이 우승 요인"이라며 이 감독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남자 양궁 단체전 3연패 위업의 주역은 순천고 출신의 장영술 감독이 맡았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부 감독을 맡아 단체전은 물론 개인전 싸움을 주도했던 장 감독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제조한 뒤,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금맥을 이어 남자 단체전 3연패를 이루어 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배드민턴 김중수(왼쪽에서 두번째) 감독과 선수들이 18일 오전 베이징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재혁이 13일 베이징 항공항천체육관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77kg급에 출전해 우승한 뒤 이형근(왼쪽) 감독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15일 베이징 올림픽 그린 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남자 개인 결승에서 아깝게 은메달에 그친 박경모가 장영술(오른쪽) 감독과 함께 아쉬워하고 있다.



실력·외모 '짱' 이용대 신드롬

2008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화순실고 출신의 '꽃미남' 이용대(20)가 빼어난 외모와 출중한 실력으로 베이징에서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이용대는 17일 밤 베이징공과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 인도네시아 조를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확정 한 뒤 잠시 코트에 드러누워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이용대는 바로 일어나 환한 표정으로 텔레비전 중계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윈크를 보였다. 이용대는 "이기고 나서 기분이 좋아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보실 저의 엄마한테 윈크를 한 건데 그게 카메라에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용대의 돌발 장면은 국내 시청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반 선수들이 메달을 딴 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거나 어쩔 줄 모르는 것과 비교하면 사뭇 여성 팬들에게는 귀엽고 깜찍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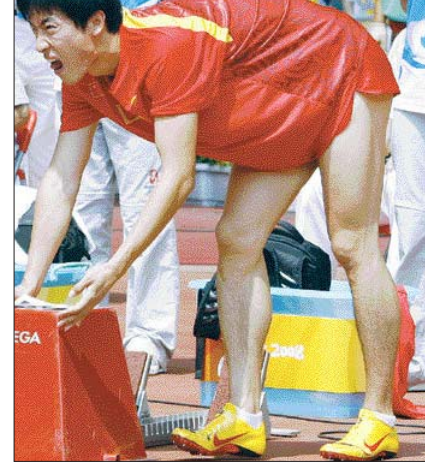
게다가 가수 이승기와 비슷한 환철한 용모로 일찌감치 배드민턴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터라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부터 이용대의 인기는 한국은 물론 베이징에서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결승전이 끝난 뒤 경기장을 찾은 중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을 비롯해 수많은 팬들의 사인요청이 잇따랐고 함께 사진을 찍자는 부탁도 쇄도했다. 당일 밤 9시30분경 금메달이 확정되자 이용대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 역시 네티즌들의 방문이 폭주하면서 이내 다운됐고 이용대 관련 기사마다 '너무 귀엽다' '윈크 한 번만 더'라는 등 외모에 호감을 나타내는 댓글이 끊이지 않았다. 하루가 지난 뒤인 이날 오전에도 포털 사이트 실시간 뉴스 검색어 순위에서는 '이용대 미니홈피' '이용대'가 줄곧 1~2위를 달리고 있다.

이용대가 혼합복식 금메달 소감을 전한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장에서도 그의 치솟은 인기는 금세 입증됐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국내 취재진 50여 명이 몰려 왔고 사진 카메라 대부분은 배드민턴 남녀 메달리스트 5명 중 가운데 자리를 잡은 이용대 한 명에게만 집중했다.

이용대는 '금메달을 딴 뒤 높아진 인기를 실감하느냐'란 질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 중국에서 인기는 모르겠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기가 높다고 한다. 한국도 아직 실감이 안나는데 물어보면 실감이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 육상 110m 허들 류상 기권 충격



서 세계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한 데는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한 심리처방이 한 몫을 차지.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심리학을 담당하는 김병현 수석연구원은 고된 훈련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체중조절, 최대 경쟁자 무상상(중국)의 출전 여부에 대한 걱정 등 갖고 있던 잠미란과 정지적으로 만나 약 1시간 대화를 통해 잠미란이 속내도 털어내고 자유롭게 하고싶은 말을 하게 내버려두는 방법으로 고민 해소에 도움.

아킬레스건 부상 악화

○ 베이징올림픽 남자 육상 110m허들에서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중국의 영웅 류상(25)이 아킬레스건 부상 악화로 대회를 기권해 중국 전역이 큰 충격. (사진) 류상은 18일 오전 베이징 귀자티위창(國家體育場)에서 벌어진 예선에서 6초 2번 레인에 나와 스타트 블락에서 쉘 준비를 마쳤으나 5번 레인의 마르셀 반 데르 베스텐(네덜란드)이 부정 출발을 해 한 차례 출발이 지연된 뒤 경기를 포기. 류상은 "발뒤꿈치까지 아킬레스 건 쪽인 것보다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미란 '금' 심리처방 한몫

○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양시청)이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 역도에

암표상 221명 체포

○ "암표와 전쟁"을 선포한 중국 공안인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221명의 암표상을 체포했다고 18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베이징시 공안국은 지난 주말 일제 단속을 펼쳐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를 팔려던 221명을 체포해 이중 71명을 구류에 처했고 나머지는 훈방했으며, 체포된 사람 중에는 외국인도 31명이나 된다고 발표.

사상 첫 성별감정 계획

○ 중국이 선수들의 성별 감정을 위해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성별감정실험실을 개설. 올림픽 참가선수들에 대한 성별감정은 남자가 여자로 분장해 메달을 '도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베이징의 세화(協和)의원에 차려진 성별감정실험실에서는 의심 선수에 대해 외관으로 먼저 판단한 뒤 양치물에서 입안에서 떨어진 나온 세포를 수집, 호르몬과 염색체 이상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

오늘의 올림픽

◇ 19일(한국시각) ▲야구 = 한국-쿠바(12시30분·우측승 야구장) ▲복싱 = 60kg급 8강전(21시01분·베이징 노동자 체육관) ▲체조 = 평행봉 등 결승(19시·국가

실내체육관) ▲핸드볼 = 여자부 8강전(13시·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 ▲하키 = 남자부 한국-스페인(19시30분·올림픽 그린 하키경기장) ▲탁구 = 남녀 개인전(12시·베이징대 체육관) ▲레슬링 = 남자 자유형 55, 60kg급(10시30분·중국농업대 체육관)

'우생순' 투혼 만리장성 넘는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한국 여자 핸드볼
오늘 중국과 8강전
흠뻑 승부 열쇠



'금빛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꿈꾸는 한국 여자핸드볼대표팀이 준결승 길목에서 홈팀 중국과 맞닥뜨렸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9일 오후 7시(한국시각) 중국 베이징 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중국과 대회 여자핸드볼 8강전을 벌인다.

한국은 조별리그 B조 첫 관에서 러시아와 비진 뒤 독일, 스웨덴을 잇따라 물리쳤고 브라질에 한차례 덜미를 잡혔지만 최종전에서 헝가리에 낙승을 거두고 조 2위로 8강에 올랐다. A조에 속한 중국은 노르웨이와 루마니아에 연달아 패

한 뒤 양궁과 3차전에서 첫 승을 거두고 4차전에서 카자흐스탄에 패해 탈락 위기에 몰렸지만 프랑스와 최종전을 승리로 이끌어 조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역대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중국과 5차례 만나 2승2무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아

시안게임이나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게임에서는 17번 대결해 딱 한번 지고 모두 이겼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중국은 만만치 않다. 기량도 많이 올라왔고 흠이점을 엮고 뛰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5월 1980년대 최고의 핸드볼 스타인 강재원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고 1년3개월간 맹훈련을 해왔다.

강 감독은 스타 플레이어 출신으로 중국 대표팀을 맡기 전까지 일본 남자 실업 다이도스팀을 이끌면서 리그 전승 우승 등을 만들어내며 지도력을 인정받은 인물. 밀바닥에 머물던 중국 여자핸드볼을 세계 중위권까지 끌어올렸다고 평가받고 있다.

중국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도 태극 여전사들의 플레이를 위축시키려 할 전망이다. 6천여석 규모의 경기장에서 '짜요(加油·파이팅)' 외침에 '대~한민국'이라는 응원 구호는 분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무래도 상대가 홈팀이다 보니 심판의 판정도 공정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임영철 감독은 "어느 팀이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강재원 감독이 한국 핸드볼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도 중국 핸드볼을 잘 안다. 흠이점이 있을 테지만 흥분하기 시작하면 달려드는 것이다. 오히려 침착하게 우리 플레이를 펼치면 승산은 충분하다"고 말했다.